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상대적 효율성 및 생산성 변화

Relativ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Change of the Korean Non- Life Insurance Firms

강호정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Ho-Jung Kang(hjkang66@pcu.ac.kr)

요약

본 연구는 DEA 기법과 Malmquist Index를 이용하여 2003년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이후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손해보험 회사들의 효율성과 생산성 변화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CR 효율성은 기술효율성을 나타내는데,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CCR 효율성 결과를 살펴보면 매년 CCR 효율성이 1인 손해보험회사는 10개 손해보험 회사 가운데 1개 회사이다. 둘째, BCC 효율성은 순수기술효율성을 나타내는데, 2004년의 경우 BBC 효율성이 1인 손해보험회사는 10개 손해보험회사 가운데 5개 회사이고, 2005년의 경우 5개 회사, 2006년의 경우 4개 회사, 2007년의 경우 4개 회사로 나타났다. 셋째, 규모의 수익가변과 관련하여 2004년의 경우 DRS는 5개 회사, 2005년의 경우 DRS는 5개 회사로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 DRS는 6개 회사로 나타났고, 2007년의 경우 DRS는 6개 회사로 나타났다. 넷째, Malmquist Index를 통한 생산성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평균이 0.99로 1보다 작으므로 생산성 감소가 이루어졌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평균은 1.04,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의 평균은 1.06으로 1보다 크므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중심어 : | 손해보험회사 | 자료포락분석 | 효율성 | 생산성 |

Abstract

This study measures the relativ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change of the Korean Non-Life Insurance Firms using DEA model and Malmquist Index for 2004-2007.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case of efficiency of CCR for 2004-2007, the number of efficient firms(CCR value is one) are one firm, one firm, one firm, one firm respectively. Second, in case of efficiency of BCC for 2004-2007, the number of efficient firms(BCC value is one) are five firms, five firms, six firms, six firms respectively. Third, In case of return to scale for 2004-2007, DRS are five firms, DRS are five firms, DRS are six firms, DRS are six firms respectively, Fourth, Malmquist Index representing productivity change for 2004-2007 are 0.99 in 2004-2005, 1.04 in 2005-2006, 1.06 in 2006-2007.

■ keyword : | Non-Life Insurance Firm | Data Envelopment Analysis | Efficiency | Productivity |

I. 서론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재산상의 손

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1922년 최초의 손해보험회사인 조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1990년대에는 보험시장의 개방과 금융자

올화 등에 의하여 경쟁체제가 형성되었고, 2003년 8월에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되었다. 손해보험사 관련 상품은 홈쇼핑, 텔레마케팅(T/M), 사이버 마케팅(C/M) 등 유통채널 구조의 다변화가 이루어졌으며, 2007년 8월 3일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었다. 2009년 2월 4일 본 법이 시행되면 자본시장 관련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켜 결합화, 통합을 통한 대형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손해보험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손해보험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3월 기준 총 11개 종합보험회사가 있고, 2,551여개의 점포, 26,838명의 임직원 및 73,588명의 설계사가 활동하고 있다.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의 원수보험료는 32조 6,925억원을 기록하였고, 경과보험료는 31조 951억원, 당기순이익은 1조 6,652억원이었다[7]. 손해보험 산업은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우연한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손해보험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렇지만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금융 산업 내 경쟁이 더욱 가속화해 될 것이므로 경쟁력이 취약한 손해보험회사들의 생존이 어려워 질 수 있다. 따라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쟁사에 비하여 효율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효율성이란 주어진 산출요소에 대한 투입요소의 최소화나 주어진 투입요소에 대한 산출요소의 최대화를 의미한다. 최근까지 DEA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의 효율성을 평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들은 [3][1][2]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IMF) 전후의 효율성을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2003년 이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자료가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료를 모두 이용하고 있다는 점, 투입변수와 산출변수의 차이 등이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이하 DEA로 표기하기로 한다)과 Malmquist Index를 이용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내손해보험회사들의 상대적 효율성과 생산성 변화를 측정하는데 있다.

II. 연구방법론

1. DEA 모형과 Malmquist Index

1.1 DEA 모형

DEA는 기능적으로 유사한 활동을 하는 조직 즉, 의사결정단위(Decision Making Unit: 이하 DMU라고 표기한다)들로부터 관측된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상호·비교하여 최상의 DMU를 기준으로 비효율적인 DMU의 상대적 효율성을 선형계획법으로 측정하는 비모수접근법이다. DEA 모형은 유용성이 높아 공공서비스 분야, 재무·금융 분야, 의료·보건 분야, 교육·학교 분야, 에너지 분야, 교통 분야 등 활용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DEA의 장점으로는 다수의 투입요소와 다수의 산출요소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점, 투입과 산출에 대한 함수적 관계의 가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DMU들이 동료나 동료 그룹과 직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 투입과 산출요소들이 각각 다른 측정단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국한점을 효율적 측정치로 사용하기 때문에 측정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는데 유용하나 절대적 효율성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최적화 모드는 투입지향모형(주어진 산출요소에 대한 투입요소의 최소화)과 산출지향모형(주어진 투입요소에 대한 산출요소의 최대화)이 있다.

DEA의 기본적인 모형으로 CCR모형[8]과 BCC 모형[7]이 있다. CCR 모형의 경우 규모수익 불변을 가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효율성을 측정하게 되는데 본 연구는 비교적 통제가 가능한 투입요소들을 기준으로 한 투입지향 CCR 모형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투입지향 CCR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선형계획모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begin{aligned} \min \quad & \Theta - \varepsilon \left[\sum_{i=1}^m s_i^- + \sum_{r=1}^n s_r^+ \right] \\ \text{s.t.} \quad & \Theta x_0 - \sum_{j=1}^J x_{ij} \lambda_j - s_i^- = 0 \quad i = 1, 2, \dots, m \\ & \sum_{j=1}^J y_{rj} \lambda_j - y_{r0} - s_r^+ = 0 \quad r = 1, 2, \dots, n \end{aligned}$$

$$\lambda_j s_i^- \cdot s_r^+ \geq 0 \quad \forall j, i, r$$

여기서, Θ : DMU₀의 효율성 측정치

ε : 비아르키메디안상수(10^{-6})로 결정변수 값에 대한 비영·비음 조건

s_i^-, s_r^+ : 투입과 산출요소의 여유변수

x_{ij}, y_{rj} : DMU_j의 i 번째 투입과 r 번째 산출요소

λ_j : 각 DMU를 프론티어상에 존재하게 할 수 있는 프론티어 DMU들의 가중치

DMU₀의 효율성 측정치 Θ 는 1 이하의 값을 가지며, 이를 DMU₀의 CCR 효율성이라 한다. 만약 CCR 효율성 값이 1이면 DMU₀가 효율적이고, 그 값이 1보다 작으면 DMU₀가 비효율적이라 한다.

BCC 모형은 규모수익 가변을 가정하고 있으며, 순수 기술효율성을 측정하게 되는데 본 연구는 비교적 통제가 가능한 투입요소들을 기준으로 한 투입지향 BCC 모형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투입지향 BCC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선형계획모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min \quad \Theta - \varepsilon \left[\sum_{i=1}^m s_i^- + \sum_{r=1}^n s_r^+ \right]$$

$$\text{s.t. } \Theta x_{i0} - \sum_{j=1}^J x_{ij} \lambda_j - s_i^- = 0 \quad i = 1, 2, \dots, m$$

$$\sum_{j=1}^J y_{rj} \lambda_j - y_{r0} - s_r^+ = 0 \quad r = 1, 2, \dots, n$$

$$\sum_{j=1}^J \lambda_j = 1 \quad j = 1, 2, \dots, J$$

$$\lambda_j s_i^- \cdot s_r^+ \geq 0 \quad \forall j, i, r$$

여기서, Θ : DMU₀의 효율성 측정치

ε : 비아르키메디안상수(10^{-6})로 결정변수 값에 대한 비영·비음 조건

s_i^-, s_r^+ : 투입과 산출요소의 여유변수

x_{ij}, y_{rj} : DMU_j의 i 번째 투입과 r 번째 산

출요소

λ_j : 각 DMU를 프론티어상에 존재하게 할 수 있는 프론티어 DMU들의 가중치

DMU₀의 효율성 측정치 Θ 는 1 이하의 값을 가지며, 이를 DMU₀의 BCC 효율성이라 한다. 만약 CCR 효율성 값이 1이면 DMU₀가 효율적이고, 그 값이 1보다 작으면 DMU₀가 비효율적이라 한다. CCR 효율성과 BCC 효율성이 같으면 규모수익이 불변이고, 다른 경우에는 증가 또는 감소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는 초효율성(super efficiency) 검증을 통해 CCR 모형이나 BCC모형을 적용할 경우 효율적인 DMU들 사위의 순위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효율적인 DMU의 경우 효율성 값이 1이상의 값을 가질 수 있다.

1.2 Malmquist Index

t기와 t+1기의 기술효율성 변화로부터 생산성 변화를 측정해내기 위해 규모의 수익 불변(CRS)을 가정하여 거리함수의 비율을 이용하여 투입지향 Malmquist Index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M^t = \frac{D(X^{t+1}, Y^{t+1})}{D(X^t, Y^t)}$$

$$M^{t+1} = \frac{D^{t+1}(X^{t+1}, Y^{t+1})}{D^{t+1}(X^t, Y^t)}$$

M^t 와 M^{t+1} 은 t 기간과 t+1 기간 사이의 생산성 변화를 각각 t기간의 기술과 t+1 기간의 기술을 토대로 측정 한 것으로 Malmquist Index가 1보다 크면 생산성 향상을, 1이면 생산성 변화가 없음을, 1보다 작으면 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t기와 t+1기의 작위적인 선정을 배제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M^t 와 M^{t+1} 의 기하 평균으로 산출한다.

2. 분석기간 및 자료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방카슈랑스 도입 시점인 2003년 이후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사업연도이며, 종합보험사 11개 가운데 자료가 부실한 1개 회사를 제외

한 10개 손해보험회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이 되는 회사들의 관련 자료는 손해보험협회의 손해보험통계 각 년도의 자료를 찾아 이용하였다. 자료처리는 Frontier Analyst 4.0을 이용하였다.

3.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선정

DEA를 이용하여 상대적 효율성 분석을 할 경우 가장 중요한 사항이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선정 및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적정 수를 결정하는 일이다.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선정 시 손해보험의 특성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데, 선행연구들의 경우 주로 투입요소로는 임직원수, 설계사 수, 대리점 수, 점포 수, 사업비, 자본금 등이 주로 이용되었고, 산출변수로는 수입보험료, 운용자산, 경과보험료, 투자자산 등이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관련 요소로 임직원+설계사+대리점수를 합한 인원수를, 자본관련 요소로는 자본금을, 물적 관련 요소로는 점포 수를 선정하였다. 산출요소로는 대부분

의 선행연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수입보험료와 운용자산을 선정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DMU의 수는 최소한 투입요소의 수와 산출요소의 수를 합한 것보다 2배 이상 되어야 한다[4]. 본 연구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잘 충족하고 있다.

4. 기초통계량

[표 1]의 표본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4년 전체의 경우 평균을 보면 노동(임직원수+설계사수+대리점수)이 13,599이고, 자본금은 65,511.3(백만원), 점포수는 236개, 수입보험료는 2,493,309(백만원), 운용자산은 3,767,222(백만원)이다.

III. 실증분석 결과

1. CCR 효율성과 BCC 효율성

표 1. 표본의 기초통계량

	투입요소			산출요소		년도
	노동	자본금	점포수	수입보험료	운용자산	
평균	12924	53792.6	243	2078947	3109439	2004년
표준편차	10549	31579.7	125	1982691	3678374	
최대값	34400	133872	477	6733718	12542896	
최소값	2643	26473	106	335633	369149	
평균	14115	59089.4	236	2280054	3469655	2005년
표준편차	11231	35705.6	149	2156231	4115804	
최대값	38134	133872	512	7199076	13978143	
최소값	2907	26473	80	359489	407258	
평균	13794	72381.5	229	2613782	3925535	2006년
표준편차	11553	53076.2	157	2467645	4621186	
최대값	37491	157034	522	8181848	15670310	
최소값	2850	26473	72	523917	568475	
평균	13563	76781.7	237	3000456	4564258	2007년
표준편차	11159	54230.1	161	2737228	5235806	
최대값	37225	169396	520	9097270	17640199	
최소값	2836	26,473	70	689969	788734	
평균	13599	65511.3	236	2493309	3767222	전체
표준편차	10701	44086	143	2289035	4311491	
최대값	38134	169396	522	9097270	17640199	
최소값	2643	26473	70	335633	369149	

* 노동의 경우 임직원수+설계사수+대리점수를 합한 것임
 * 자본금, 수입보험료, 운용자산의 단위는 백만원임

표 2. CCR 효율성과 BCC 효율성

회사명	년도	CCR	순위	BCC	순위	규모의 수익 (PTS)		
						DRS	CRS	IRS
메리츠	2004	0.8210	3위	0.9510	8위	○		
	2005	0.8520	3위	0.9670	7위	○		
	2006	0.8920	3위	0.9840	6위	○		
	2007	0.8200	7위	0.8420	9위	○		
한화	2004	0.6970	7위	0.8760	10위	○		
	2005	0.5100	10위	0.8160	10위	○		
	2006	0.7860	7위	0.9890	5위	○		
	2007	0.7230	9위	0.9370	6위	○		
그린	2004	0.6490	9위	1.0000	2위		○	
	2005	0.6550	8위	1.0000	2위		○	
	2006	0.8420	4위	1.0000	2위		○	
	2007	0.9960	2위	1.0000	2위		○	
흥국	2004	0.7660	6위	1.0000	3위		○	
	2005	0.7780	6위	1.0000	5위		○	
	2006	0.7340	8위	0.9270	8위	○		
	2007	0.8530	6위	0.8770	8위	○		
제일	2004	0.7920	5위	0.9530	7위	○		
	2005	0.7730	7위	0.9620	8위	○		
	2006	0.6950	9위	0.8130	10위	○		
	2007	0.7030	10위	0.7120	10위	○		
삼성	2004	1.0000	1위	1.0000	1위		○	
	2005	1.0000	1위	1.0000	1위		○	
	2006	1.0000	1위	1.0000	1위		○	
	2007	1.0000	1위	1.0000	1위		○	
현대	2004	0.8680	2위	0.8960	9위	○		
	2005	0.9710	2위	0.9980	6위	○		
	2006	0.9260	2위	0.9420	7위	○		
	2007	0.9450	3위	0.9530	5위	○		
LIG	2004	0.6760	8위	1.0000	5위		○	
	2005	0.8300	4위	1.0000	4위		○	
	2006	0.7980	5위	1.0000	4위		○	
	2007	0.9010	4위	1.0000	4위		○	
동부	2004	0.8000	4위	0.9610	6위	○		
	2005	0.8010	5위	0.9170	9위	○		
	2006	0.7930	6위	0.9130	9위	○		
	2007	0.8780	5위	0.9230	7위	○		
롯데	2004	0.5660	10위	1.0000	4위		○	
	2005	0.5790	9위	1.0000	3위		○	
	2006	0.6730	10위	1.0000	3위		○	
	2007	0.8060	8위	1.0000	3위		○	

* 회사명은 2007년 기준으로 함

[표 2]는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들의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CCR 효율성과 BCC 효율성 결과를 보여 준다. CCR 효율성은 기술효율성을 나타낸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CCR 효율성 결과를 살펴보면 매년 CCR 효율성이 1인 손해보험회사는 10개 손해보험 회사 가운데 1개 회사이다. 1개회사는 삼성으로 나타났다. CCR 효율성이 1보다 작은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우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CC 효율성은 순

수기술효율성을 나타낸다. 2004년의 경우 BBC 효율성이 1인 손해보험회사는 10개 손해보험회사 가운데 5개 회사이고, 2005년의 경우 BBC 효율성이 1인 손해보험회사는 10개 손해보험회사 가운데 5개 회사로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 BBC 효율성이 1인 손해보험회사는 10개 손해보험회사 가운데 4개 회사고, 2007년의 경우 BBC 효율성이 1인 손해보험회사는 10개 손해보험회사 가운데 4개 회사로 나타났다. 규모의 수익가변과 관련하여 DRS는 규모의 감소를 통해, IRS는 규모의 증가를 통해 효율성 개선이 가능하다. 2004년의 경우 DRS는 5개 회사, 2005년의 경우 DRS는 5개 회사로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 DRS는 6개 회사로 나타났고, 2007년의 경우 DRS는 6개 회사로 나타났다. DRS를 나타내는 손해보험회사들은 규모의 감축을 통해 효율성 개선이 가능하다.

2. Malmquist Index를 통한 생산성 변화

표 3. Malmquist Index

	Malmquist Index (2004-2005)	Malmquist Index (2005-2006)	Malmquist Index (2006-2007)
메리츠	0.9638	1.3852	1.0418
한화	0.9878	1.1326	0.9678
그린	0.9403	0.9148	1.4925
흥국	1.1200	1.0882	0.9364
제일	0.9573	0.9765	0.9746
삼성	1.0000	1.0000	1.0000
현대	0.9702	1.0481	0.9257
LIG	0.9808	0.9818	1.3483
동부	0.9806	0.9729	0.9710
롯데	0.9533	0.9369	0.9483
평균	0.99	1.04	1.06

[표 3]의 Malmquist Index를 통한 생산성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평균이 0.99로 1보다 작으므로 생산성 감소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평균은 1.04로 1보다 크므로 생산성 증가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의 평균이 1.06으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평균 1.04에 비하여 약간 크며, 1보다 크므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자본시장 관련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켜 겸업화, 통합을 통한 대형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손해보험을 둘러싼 경영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DEA 기법과 Malmquist Index를 이용하여 2003년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이후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손해보험 회사들의 효율성과 생산성 변화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CR 효율성은 기술효율성을 나타내는데,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CCR 효율성 결과를 살펴보면 매년 CCR 효율성이 1인 손해보험회사는 10개 손해보험 회사 가운데 1개 회사이다. 1개회사는 삼성으로 나타났다. 둘째, BCC 효율성은 순수기술효율성을 나타내는데, 2004년의 경우 BBC 효율성이 1인 손해보험회사는 10개 손해보험회사 가운데 5개 회사이고, 2005년의 경우 BBC 효율성이 1인 손해보험회사는 10개 손해보험회사 가운데 5개 회사로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 BBC 효율성이 1인 손해보험회사는 10개 손해보험회사 가운데 4개 회사고, 2007년의 경우 BBC 효율성이 1인 손해보험회사는 10개 손해보험회사 가운데 4개 회사로 나타났다. 셋째, 규모의 수익기변과 관련하여 DRS는 규모의 감소를 통해, IRS는 규모의 증가를 통해 효율성 개선이 가능하다. 2004년의 경우 DRS는 5개 회사, 2005년의 경우 DRS는 5개 회사로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 DRS는 6개 회사로 나타났고, 2007년의 경우 DRS는 6개 회사로 나타났다. 넷째, Malmquist Index를 통한 생산성 변화를 살펴 보면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평균이 0.99로 1보다 작으므로 생산성 감소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평균은 1.04로 1보다 크므로 생산성 증가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의 평균이 1.06으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평균 1.04에 비하여 약간 크며, 1보다 크므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나타난 손해보험회사들이 개선 노력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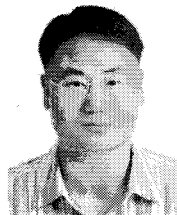
참고 문헌

- [1] 정중영, 김병철, "손해보험회사의 효율성 및 생산성에 관한 연구", 리스크관리연구, 제17권, 제1호, pp.79-107, 2006.
- [2] 박춘광, 김병철, "금융위기 이후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효율성 및 생산성 변화 연구", 재무관리연구, 제23권, 제2호, pp.57-83, 2006.
- [3] 김동훈, 이기형,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효율성 및 생산성 변화 분석", 리스크관리연구, 제12권, pp.67-99, 2001.
- [4] J. A. Fitzsimmons and M. J. Fitzsimmons, Service Management for Competitive Advantage, McGraw-Hill, pp.31-33, 1994.
- [5] R. D. Banker, A. Charnes, and W. W. Cooper, "Some Models for Estimating Technical and Scale Inefficiencies in Data Envelopment Analysis," Management Science, Vol.30, No.9, pp.1078-1092, 1984.
- [6] A. Charnes, W. W. Cooper, and E. Rhodes, "Measuring the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Unit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Vol.2, pp.429-444, 1978.
- [7] <http://www.knia.or.kr/>

저자 소개

강 호 정(Ho-Jung Kang)

종신회원



- 1991년 2월 : 충남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사)
-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00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현재 :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 기업재무, 투자론, 스포츠경영